

주일 예배 11시

2017년 9월 24일 (넷째 주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

예배로의 부름

사회: 김성진 집사

*찬송	주님의 시간에(623장)	다 함께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교독문	54번	다 함께
*찬송	주의 사랑 비칠 때에(293장)	다 함께
기도		김영자 권사
찬송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84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예수 그리스도: 2 세상의 빛(요한복음 8장 12절)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502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 10월 예배 순서 담당자: 순서 담당자는 당일 10시 20분 기도회에 참석바랍니다. 사회: 김동진 형제 특송: 김성진 집사 가족(8일), 마리아회(22일)
기도: 김성진 집사(1일), 장연재 형제(8일), 하재혁 집사(15일),
현윤경 집사(22일), 김영자 권사(29일)
- 금주 읽을 성경: 시편 132-138편, 누가복음(1-12장)
- 기도해 주세요- 1.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
2.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순례자의 목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로 건져주시었습니다.

오늘 이 어려움, 다음 또 다른 새로운 어려움이 있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시며, 그들을 품으시고 구원하여 주시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맙니다.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중에 태어난 이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보다도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했던 성전에서, 회막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백성이 내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속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내 하나님을 모시고 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면, 광야에서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 주님 모신 강하고 경건된 삶으로 나아간다면, 가나안의 전투도 어려운 것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 속에 진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 줄 압니다.

가나안 복지의 부요와 평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금 어두움과 죄악 속에 가라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경건 되게 그리고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성전된 삶으로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땅 끝에서

금 철

내 주님의 발등상으로

이재홍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때로는 주님을 따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걸을 때도 있을 것이고,
 발붙일 곳 없는 삶을 살게 될 때도
 있겠지요.
 그때에도 세상의 보장을 취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발등상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아니고 주님만이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무엇을 혹 얻었고
 얻는다 하여도
 내 것 아님을 인식하고
 주님께만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뢰함이
 내게 힘이 됩니다.
 사막도 주님과 함께한다면
 걸어볼 희망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도 오히려
 평강을 느낍니다.
 부요하신 주님과 동행은 기쁨입니다.
 희망의 꽃은
 고난의 토양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처럼 왕의 위치든,
 삼손처럼 큰 능력을 힘입은 자이든
 내가 아님을 ...
 나는 주님께만 나아가는 자로,
 주님만을 나의 모든 것 삼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주님께만,
 내 주님께만 나아가는 자로
 살게 하소서.

갖추어진 조건이 주는 평안함 속에
 안주하기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 함께
 땅 끝에서 주님 향해 달립니다.
 다윗이 메마른 유대광야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듯이,
 타는 목마름으로 정오에도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PALOUSE KOREAN CHURCH



2017년 9월 24일(39주) 31권-39호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